



20일 순천시 도시동 목포-광양 고속도로 순천만 구간(3.5km)에서 교각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도로는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인 순천만을 관통하는 노선 때문에 환경훼손 논란을 빚어왔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순천만 철새둥지 지켜냈다

30여 시민단체, 목포~광양 고속도로 환경 보존 대책 끌어내

국토부 녹지공간 조성·소음 차단 방안 마련

세계적인 철새 보금자리인 순천만 시민들의 꾸준한 보존 촉구 노력으로 대규모 환경훼손 위기를 벗어났다.

시민·사회단체의 7개월 여 보존 투쟁이 정부로부터 순천만 입구를 관통하는 목포-광양 고속도로 구간 11공구(3.5km)와 관련한 환경 보존 대책을 이끌어 낸 것이다.

순천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순천만 관통 고속국도 공사중지 촉구 범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는 20일 순천시 도시동 순천만 관통 고속도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순천만 고속도로 구간의 환경저감방안 일부 설계변경을 수

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순천만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부분 양 사면과 주변 부지 3만1천280㎡를 추가 확보해 1만1천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고속도로 외관을 가리는 숲을 조성키로 했다.

또 방음벽 설치, 도로주행 차량 등에 대한 불빛차단막, 생태통로 구축 등 환경훼손 저감 방안을 마련, 환경부와 협의중에 있다고 시민대책위에 알려왔다는 것이다.

그동안 시민위와 환경단체 등은 설계대로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순천만 입구의 환경훼손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차량 소음으로 순천만을 찾는 철새들이 사라지고, 관광객들의 조망권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

된다며 설계변경을 촉구해왔다.

특히 시민위는 지난 5월 22일 "정부가 고속도로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순천만 습지생태계에 치명적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시민위는 그동안 정부 각부처에 보호책 마련을 촉구한데 이어 '100인 위원회'를 구성해 순천만 보호 투쟁을 전 시민운동으로 전개해 왔다.

더욱이 동부지역사회연구소, 경실련, YMCA 등 순천지역 30여개 시민·환경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한 대책위의 활동은 전국적인 공감과 지지를 받았다.

결국 시민위의 보존투쟁은 여수 엑스포와 광양항에 대한 SOC 조기확충분을 내세워 공사를 강행하던 정부의 '개발 드라이브'에 제동

을 거는 한편, 순천만 환경훼손 저감대책을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민위 측은 "그동안 요구해온 설계변경은 수용되지 않았으나 현실적으로 이 정도 대책이라도 마련돼 다행"이라며 "환경부와 최종 협의가 남아있으나 이대로 시행될 것으로 안다"며 "향후 고속도로가 순천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 훼손 저감방안이 확충되도록 당국에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6년 12월 착공, 오는 2011년 12월 완공 예정인 목포-광양 고속도로는 순천을 경유(5.67km)하는데 이중 3.5km구간이 순천만 앞을 통과한다.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gija@

신종플루 백신 이상반응 극소수

광주 초등생 7만6천명중 0.03% 23명만 두통·구토

전남선 확진 3세 남아 1명 숨져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한 광주 지역 초등학생 극소수만이 두통, 구토 등 이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보고됐다. 전남에서는 3세 남아 어린이가 신종플루로 숨졌다. 정부는 생명이 위독한 신종플루 환자에게 미허가 항바이러스제를 공급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11일부터 예방접종을 받은 초등학생 7만6천286명 중 23명이 접종 후 두통이나 어지러움, 구토 등의 이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보고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접종자의 0.03%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중 1명은 광주 모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지만 접종 전부터 현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남대 감염내과 장희창

교수는 "독감 등 각종 예방접종 후 구토나 발열, 현기증, 두드러기 등의 이상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라면서 "그러나 현재 광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이상 증세를 보이는 초등학생은 현재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역학 조사를 진행할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접종과정 전반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에서는 신종플루 확진 후 치료를 받던 3살 남아어린이가 숨졌다. 이로써 광주·전남지역에서 신종플루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2명이 됐다.

한편, 이르면 24일부터 생명이 위독한 신종플루 환자에게 미허가 항바이러스제가 공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의약품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미허가 항바이러스 주사제 '페라미비르'를 생명이 위독한 신종인플루엔자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쓸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페라미비르는 주사로 투여하는 항바이러스제다. 식약청은 내부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기존 치료제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 ▲기존 치료제를 투여할 수 없는 환자 ▲정맥 투여가 적절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환자 ▲생명이 위독하거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에게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사이판 괴한 무차별 총기 난사

한국 관광객 6명 부상

동남아시아의 관광지로 유명한 미크로네시아의 사이판에서 20일 한국인을 포함한 다수의 관광객들에게 신원미상의 괴한이 총기를 난사해 4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 6명(총부상자 8명)이 부상했으나 사망자는 없으며, 괴한은 자살했다고 외교통상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오늘 현지시각으로 오전 11개 사이판 시내 관광지 마르피 지역의 '만세절벽' 부근에서 신원미상의 괴한이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들에게 총기 10여 발을 난사하고 도망친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 사건으로 우리 관광객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괴한은 이후 '만세절벽'으로 이동, 자신에게 총을 쏘서 자살했다.

현지 언론인 '사이판 트리뷴'은 "괴한이 앞서 카나트 타블라 지역에서 20~30대 남자 2명과 어린이 2명 등 4명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했고, 사망자 중에는 한국인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인 부상자 8명 중 몇명이 현지 당국이 발표한 부상자 8명의 명단에 포함됐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현지 영사협력원을 통해 사상자 명단을 재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상자 중 박모(39)씨는 다리 부분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나머지 5명은 활과상 등의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과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아직 정확한 사건 경위 및 범행 동기는 아직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연합뉴스

한·중 無비자 추진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

내년 상해 엑스포를 계기로 한국-중국 간의 상호 무비자 입국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평창 올림픽리조트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에서 한·중 무비자 입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불법 체류 우려가 적은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 30일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양국 상호 무비자 입국을 추진한다. 또한, 현재 일부 영사관이 채택하고 있는 개별 관광객 비자발급에 대한 여행사 대행제도를 중국의 전 공관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편리한 관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관광시설-숙박'을 통합 이용할 수 있는 '코리아 패스'를 도입키로 했다. /임동욱 기자 tuim@

